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7 • 7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다윈 폭풍



다윈 폭풍이 몰아쳤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26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하였다.

주민발의안 8의 경과는 이렇다. 지난 2008년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4:3으로 동성결혼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캘리포니아는 매사추세츠(2004년)와 코네티컷(2008년)에 이어 3번째로 동

성결혼을 허용한 주가 되었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 단체들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주민발의안 8(동성결혼 합법화 무효)을 상정했고 52%의 찬성을 얻어 캘리포니아를 다시 동성결혼 금지 주로 되돌리는데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런데 동성혼 지지자들은 이 주민들의 선택에 불복하고 이 문제를 다시 법원에서 해결하고자 소장을 냈고, 드디어 지난 5월 26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6:1로 주민발의안 8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결혼 불가가 지켜지게 된 것이다.

동성에 성향(preference)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개 생리적인 혹은 환경적인 원인을 들게 된다. 따라서 일부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신체 장애인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듯이 동성에 성향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 결과 동성결혼도 이성결혼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받아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훌륭한 인격자의 모습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죄(레 18:22)라고 말하고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전 6:9-10). 이런 확실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을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은 왜 무시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크리스천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한 부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도 없고 성경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은 그저 동물들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은 세속 사람들이 가진 견해인데 과학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더욱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바로 진화론의 영향인 것이다. 마치 소용돌이치는 태풍처럼, 다윈의 진화론은 오늘 캘리포니아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이 되어 거침없는 파괴를 예고하고 있다.

“진화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특별창조(special creation)는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진화론이 크게 힘을 떨치던 1929년 세계 최고의 과학잡지 중 하나인 Nature (Vol. 124, P. 233)에 실린 진화론자 왓슨의 고백인데 진화론은 다윈의 출생 200주년을 맞는 오늘에도 여전히 특별창조를 적대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영박물관의 진화론 과학자였던 콜린 패터슨 박사가 잘 지적하였듯이 진화는 실체(entity)가 없는, 사실이 아닌 상상이기 때문에 진화 자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전히 위

AFTER EDEN

by Dan Lietha

어거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거니가 됨이라

창 3:20

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교육을 통하여 지식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세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두렵고 슬픈 사실이다.

한 예를 보면, 2005년 버클리(UC Berkeley)대학 학생들에게 사람의 기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무려 87%의 학생들이 동물에서 진화된 것으로 믿는다고 대답하였다. 매우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일반인들은 40%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아래 표). 일반인 55%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믿는 것에 반해 버클리 학생들은 13%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다른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도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믿음을 가진 차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장차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될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자녀들이 3명 중 2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이 되거나 부모를 떠나 사회 속에 들어갈 경우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기원은?	일반인	버클리
1. 수백만년 걸쳐 덜 발달된 형태에서 진화 / 하나님과 무관	13%	56%
2. 덜 발달된 형태에서 진화 / 하나님의 섭리	27%	31%
3. 하나님이 현재 형태로 창조	55%	13%
4. 모르겠다	5%	0%

이번 다윈 폭풍은 18,000 쌍의 동성결혼자와 8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를 내고 지나갔지만,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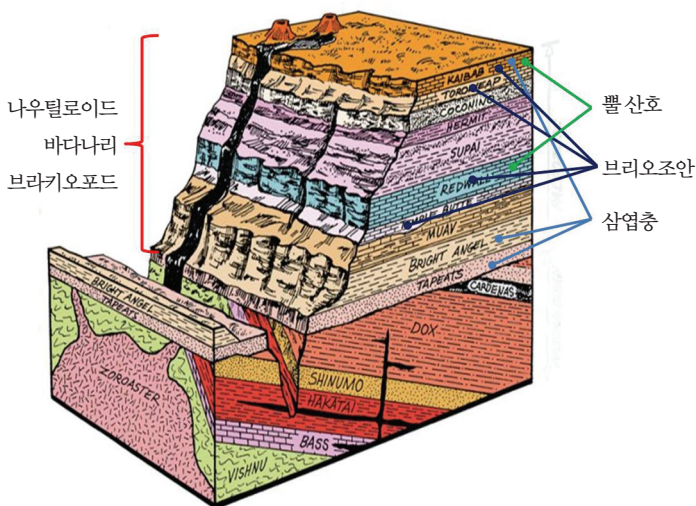
불공평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란 주장은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동성결혼 불가를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2010년이나 2012년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9년 전에는 62%의 주민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였지만 1년 전에는 52%만이 반대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추세로 변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라고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죄가 아니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런 합법화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명백한 죄인데도 사이비 과학인 진화론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들은 성경의 창조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은 틀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은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란 주장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대안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식 시키는 것이다. 이 창조 사실의 기초로 교회의 젊은이들을 데려 와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터로 데려 와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급히 선포되어 지고 가르쳐져야 할 때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그랜드캐년에서

화석이 진화순서대로 발견될까?

진화론자들은 퇴적지층의 시대를 그 놓여진 순서로 결정한다. 아래 놓인 것은 오래된 시대며 위에 놓여진 것은 더 최근의 것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지층 안에서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 지층의 놓여진 순서에 따라 그 화석의 시대가 결정된다. 한편 어떤 다른 지역의 지층에서 그와 동일한 화석이 발견된다면 이 지역의 지층의 시대는 그 화석의 시대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지층으로 화석의 시대를 정하고 그 화석으로 지층의 순서를 정하는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 안에서 시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루어크가 언급한 아래 글은 순환논리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표준화석들은 새로운 암석지층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화석들은 그것이 발견된 암석지층의 연대에 따라 그 화석 연대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



삼엽충



브리오조안



브라키오포드

태에 있는 순환논리이다.” (J.E. O’ Rourke, “Pragmatism versus Materialism in Stratigraphy,” American Journal of Science, Vol. 276, January 1976, p. 51.)

지구상에서 지층을 가장 시원하게 드러낸다는 그랜드캐년에서의 화석 분포는 과연 어떻게 진화의 순서대로 발견될까?

삼엽충(trilobites) 화석은 일반적으로 고생대 최하부인 캄브리아기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랜드캐년의 가장 위의 지층인 페름기의 카이밥(Kaibab) 석회암에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삼엽충 하면 떠오르는 캄브리아기 시대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

브리오조안(bryozoans: 산호와 비슷한 군집생물)은 데본기, 미시시피기, 페름기 전지역에서 발견된다.

조개류인 브라키오포드(brachiopods)는 그랜드캐년 거의 전 지층에서 발견된다.

바다나리(crinoids) 역시 전 지층에서 발견된다.

길다란 무척추동물 화석인 나우틸로이드(nautiloids) 역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미시시피기의 레드월(redwall) 석회암뿐 아니라 그랜드캐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다.

뿔 산호(horn coral)는 캄브리아기와 페름기에서 발견된다.

위에 언급된 그랜드캐년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화석 결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층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하는 그랜드캐년은 화석으로 시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며, 오히려 화석이 진화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뚜렷한 지층의 모습 때문에 화석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랜드캐년의 지층과 화석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랜드캐년의 화석으로 다른 지층의 시대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석은 결코 어떤 지질시대를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패러다임 때문에 위에 언급된 화석들의 연대를 측정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화석이 말하는 것은 그 화석이 매몰될 당시의 위치를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노아홍수의 격변적 상황에서 어떤 생물이 매몰되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흙들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생물이 매몰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그랜드캐년 지층에서 일관성 없는 화석 분포는 당연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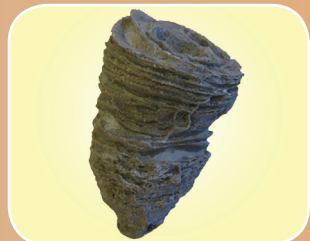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바다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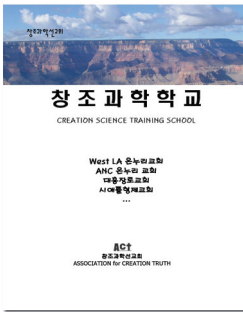
나우틸로이드



뿔 산호

ACT News

창조과학학교(Creation Science Training School)



남가주 지역에 창조과학학교가 연이어 열립니다. 현재 유학생이 주된 구성원인 West LA 온누리교회(담임목사: 한승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월 7일부터는 ANC 온누리 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매 주일 10주 동안 진행 됩니다. 또한 올 가을 9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대흥장로교회(담임목사: 권영국)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단기 창조과학학교가 시애틀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에서 열립니다. 창조과학학교는 창조과학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활용하여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5월에 이어졌던 창조과학 탐사여행

5월로 접어들면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7-8일 의료선교기관인 MOM(Messengers Of Mercy)에서 노아홍수를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MOM 선교회는 내년 봄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16일 갈릴리 은혜교회(담임목사 구본철)는 첫 탐사여행이었으며, 2세 탐사여행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p.14 간증 참고).

18-20일 열반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박종길)는 그 동안 유학생을 위한 탐사여행을 후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봄, 가을 연 2회의 정기적인 탐사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p.14 간증 참고).

23-25일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는 매년 Memorial Day 탐사여행을 떠나는데, 올해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오는



MOM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탐사여행



갈릴리 은혜교회 - 그랜드캐년 Visitor Center에서

7월 말 한 차례 더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6월부터 창조과학 학교도 개강합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했던 분들의 감동은 간증 코너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써주셨는데 지면상 다 실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뉴스레터에 실리지 않은 귀한 간증들은 홈페이지(www.HisArk.com) 우측 하단에 있는 “ACT 간증” 아이콘을 클릭 하셔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Open

7월 23-25일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open됩니다. 그 앞 주인 16-18일 탐사여행에 이미 인원이 초과하여 한 회를 더 열기로 했습니다. 경유지는 모하비 사막 - 세도나 - 규화목 국립공원 - 그랜드캐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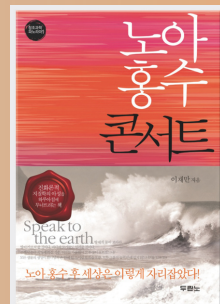
ANC 온누리교회 탐사여행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출발!!!

내년 1월 4-6일(월-수)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준비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감격하던..... 그 환호와 기쁨이 다시 속개가 되었습니다. 올 유학생 탐사여행은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탐사여행을 이어나가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주위의 학우들에게 적극 추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공감하는 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노아홍수 콘서트 출간

지난 4월 17일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책 “노아홍수 콘서트” (이재만 저)가 출간되었습니다(2009년 6월 뉴스레터 참고). 좋은 평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주에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13-381-1390; 이메일: “mailto:HisArk@gmail.com” HisArk@gmail.com; \$20.00/권 + S/H; 10 권 이상 단체 주문은 무료 S/H.





세계관 전쟁 2

자연현상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 할 수 있을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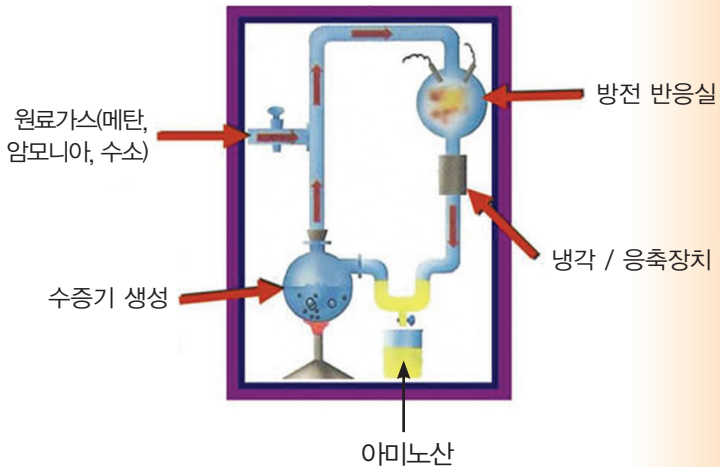
화성여행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가? 우주비행사는 화성에 살았던 외계 인간이 수 십억년 전에 “생명의 씨앗”을 지구에 심은 것을 발견한다. 운석이 화성의 대기권을 파괴하자 외계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가기 전에 이들은 지구에 DNA를 남겨 두어 생명의 진화가 시작 하도록 하였다.

지구에서는 생명의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핵산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프란시스 크릭을 포함한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에서 도입 된 물질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생명이 시작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생명의 기원을 다른 행성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나 다른 행성에 단순한 생명이 발생 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 나야 할까? 본 장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다루고 성경만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하셨느니라...”(창세기 1:1)

생명이 어떻게 발생 했나를 생각할 때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다. 지적인 원인(하나님)에 의하든지 아니면 자연 발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교과서나 미디어를 통해 얻는 공통적인 개념은 38억년 전에 화학물질로 된 연못에서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생겨 났다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생명의 시작은 시간과 우연을 통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생명이 어떻게 자연 현상을 통해 만들어 졌는지를 보여 주는 흔히 쓰는 예가 1950년대에 있었던 밀

밀러의 실험장치



러-유레이 실험이다.

밀러의 목적은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의 기본단계가 되는 물질(아미노산)을 만드는 모의 실험이었다(위 그림). 실험에서 밀러는 생명 발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기물질이 섞여 있는 초기의 대기권을 가상적으로 만들었다. 포함된 가스(수분, 메탄, 암모니아, 수소)들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서로 작용 하지 않으므로 화학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번개)를 가하기 위해 전류를 통과 시켰다.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이 생성 되었다. 많은 교과서는 이 실험을 생명 발생을 설명하는 첫 단계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실험에는 교과서에 흔히 소개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다.

밀러 실험의 목적과 가정과 결과를 고찰해 보면 세 가지의 비판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 실험의 얼마만큼이 우연이고 얼마만큼이 지적설계에 의존 한 것인가?
2. 밀러는 대기권의 조성이 어떠한지(수 십억년 전에)를 어떻게 알았는가?
3. 밀러는 생명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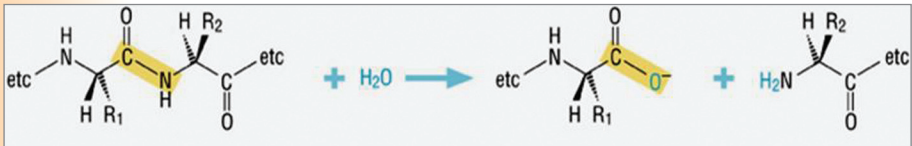
실험방법

실험에서 밀러는 생명의 기본단위(아미노산)가 어떻게 자연현상에 의해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를 보여 주려고 했다. 그러나 밀러는 전체 실험을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화학 지식에 의존했다(그림). 어떤 가스를 포함 시킬지 않을지를 선택

했다. 얻은 생화학물질(아미노산)을 환경으로부터 파괴를 막기 위해 격리시켰다. “원시 대기권”에는 이러한 체계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밀리는 우연의 과정 보다는 지적설계를 실험전체를 통해 이용했다.

초기 조성물질

수 십억년 전의 대기권을 밀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밀리는 초기의 대기권은 오늘의 대기권과 전혀 다른 것으로 가정했다. 초기의 대기권을 환원 대기권(산소가 없는 대기)으로 가정하고 초기 조성물질을 정했다. 밀리나 다른 진화론자들은 왜 초기 대기권에 산소가 없었다고 가정할까? 아래에 증명 되지만 생물학적인 분자는(특히 아미노산) 산소가 있으면 파괴되어서 생명이 진화 할 수 없게 된다.



가수분해

산소는 행성의 표면에 있는 무기물질이나 유기물질을 파괴하는 독소적인 가스다; 여기에 대한 방어기전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생명체는 죽게 된다.¹

...대기권이나 초기 지구의 수중에 (산소)가 있었을 경우 생명조성 물질이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파괴 되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므로) 화학진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²

그러므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은 초기의 대기권에는 산소분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문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주장을 지지해 줄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진화가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판명된 것처럼 환원대기의 존재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고 다만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거로 판명되기는 지구에는 산소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에게 필요한, 산소가 없는 대기권이 지구에 있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지구의 가장오래된 암석에 산소가 있는 대기권에서 조성되었다는 증거가 있다.³

문헌에 보는 근래의 경향은 초기대기권에는 아무도 상상 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산소가 있다는 것이다.⁴

만일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원시대기권에 산소가 없었다 해도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생겨 난다. 오존은 산소로부터 만들어지므로 산소가 없으면 오존이 없

게 된다; 태양의 자외선은 어떠한 생물학적인 분자도 파괴시킨다. 이것은 바로 진화론 모델의 이론적 패배를 의미한다. 산소가 있었으면 생명이 시작되지 못했고, 산소가 없었으면 생명이 시작할 수 없었다. 마이클 덴톤은 말하기를,

이것은 “Catch 22” 즉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소가 있으면 유기물질이 없고 산소가 없어도 역시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⁵

생명이 육지에서 발생 할 수는 없었으므로 어떤 진화론자들은 바다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유기물질이 합성되는 순간 물에 의한 가수분해로 즉각 분해 되었을 것이다(왼쪽 그림). 가수분해란 “물로 자른다”는 말인데 연결된 두 개의 분자(이 경우에는 두 개의 아미노산)를 물이 가운데 들어감으로 분리되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수분해 작용은 결합체 들을 분리 시킬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을 파괴시킨다.⁶

일반적으로 물과 접촉 해 있는 중합체의 반감기는 며칠이나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지질화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물론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⁷

더우기 물은 아미노산의 결합고리를 파괴시킨다. 삼십 오억년 전에 바다에서 어떠한 단백질이 형성 되었다 해도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⁸

과학적으로 본다면 생명이 지구상에 생길 수 있는 화학 진화론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1. Ward, P., and Brownlee, D., Rare Earth, p. 245, 2000.
2. Thaxton, C., Bradley, W., and Olsen, R., 'The Mystery of Life's Origin: Reassessing Current Theories', p. 66, 1984.
3. Clemmey, H., and Badham, N., Oxygen in the atmosphere: an evaluation of the geological evidence, Geology 10:141, 1982.
4. Thaxton, C., Bradley, W., and Olsen, R., The Mystery of Life's Origin, p. 80, 1992.
5. Denton, M., Evolution: A Theory in Crisis, p. 261, 1985.
6. Encyclopedia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1, pp. 441-412, 1982.
7. Dose, K., The Origin of Life and Evolutionary Biochemistry, p. 69, 1974.
8. Morris, R., The Big Questions, p. 167, 2002.

출처 :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이 책의 다른 부분은 www.HisArk.com의 “세계관 전쟁”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 은혜교회 탐사여행 간증문(5/14~5/16, 2009)

하나님을 세계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불신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벽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탐사여행을 교회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구본철 목사

하나님의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라는 2박 3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 “노아방주(box)”에 살며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선교사로서 더 믿음의 확인이 되었으며, 페루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 아이다 선교사

패러다임의 사고 속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성경 따로, 믿음 따로의 삶이었다. 또 그러한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는 나를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으로 이끌었다. 정답지를 들고도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빨리 사용하고 싶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안순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나이가 막연한 추정치로 매우 오래 되었다는 인식이 잘못되었고 지구는 젊다는 사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노아홍수 사건이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 사실로 깨달았습니다. -김인철

미국에 25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그랜드캐년을 간다는 설레임에 마냥 놀러 가는 여행으로만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며 돌아가는 차 속에서 제 마음속을 흔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 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저에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제 삶의 turning point가 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엄기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그 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라는 확신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머리와 생각으로 무한하신 그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0%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와 제 아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 조금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나, 자연이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고, 결국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그리고 사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세대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홍유경

얼바인 온누리교회 탐사여행 간증문 (5/18~ 5/20, 2009)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수 때 이야기, 화석 이야기, 패러다임 이야기,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믿지만 증거를 몰랐던 내용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이재만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묵회와 신앙과 삶에 큰 은혜를 주셨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종길 목사

세상사는 개념을 바꾸어 놓은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으로 좋았습니다. ...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신감만 가득합니다. - 신민수

저는 요즘 사람들의 시각적인 부분을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한마디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전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저도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예쁜 미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안에선 너무 귀한 자녀라는걸 깨달았어요. ... - 이선우, Woodbridge High School, 2학년

제 주위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작은 농담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게 진화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왜 진화론이 거짓인지를 설명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운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거예요. ... 아무 생각없이 엄마에게 등 떠밀려 왔다고 생각한 탐사여행,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탐사여행이 되버렸네요. - 이진주, Indiana University, 2학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주혜, Biola University

The Bible tells us that our faith is not by sight. However, through seeing, hearing, teaching and overwhelming evidence, I am so gratified that I am a follow of God. Finally, I'm honored that God has chosen me to proclaim that he is the only creator of this universe. - Rev. Jay Sohng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음을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에서 prelood stage의 하나님의 피조물(rock)을 볼 수 있었음은 주체하기 힘든 감격이었습니다. ... 나의 삶 또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यो,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변동국 목사

“창조과학” 생소했습니다. 참 진리로 깨달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성진경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보다 더 깊고 명료한 지식을 2박 3일 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캐년은 꼭 창조과학선교회 탐사여행으로 가보고 싶다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그 만들어진 진 과정을 아는 순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주지은

2009년 ACT Schedule

- 
- 7/1 한샘물교회(세미나, 이재만, 626-535-3709), S. Pasadena, CA
 - 7/1 사랑의 빛 선교교회 (세미나, 최우성, 626-744-3405), Pasadena, CA
 - 7/5 창조과학학교(최우성), LA 온누리교회, CA
 - 7/5 주님의영광교회 새신자반(이재만), LA, CA?
 - 7/8 한샘물교회 (세미나, 이재만, 626-535-3709), S. Pasadena, CA
 - 7/11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이재만, LA 온누리교회 창조과학학교)
 - 7/12 창조과학학교(이재만), LA 온누리교회, CA
 - 7/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인랜드 순복음교회, 213-381-1390)
 - 7/15 한샘물교회 (세미나, 최우성, 626-535-3709), S. Pasadena, CA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모집, 213-381-1390)
 - 7/19 창조과학학교(이재만), LA 온누리교회, CA
 - 7/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Come Mission, 213-383-5499)
 - 7/26 창조과학학교(최우성), LA 온누리교회, CA
 - 7/27-28 Come Mission (세미나, 이재만, 213-383-5499), LA, CA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ANC 공동체, 213-446-2821)
 - 8/2 창조과학학교(최우성), LA 온누리교회, CA
 - 8/3-5 창조과학 탐사여행(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770-643-1459)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68)
 - 8/9 창조과학학교(이재만), LA 온누리교회, CA
 - 8/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터형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 8/10-12 Santa Maria 믿음장로교회 Youth(최우성, 805-266-2052)
Santa Maria, CA
 - 8/13-15 창조과학 탐사여행(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 8/16 주님의영광교회 새가족(이재만/최우성), LA, CA
 - 8/17-24 일본 창조과학회 (이재만) Tokyo, Japan
 - 8/28-9/6 과테말라시티 및 셀라 (이동용, 630-400-6114), Guatemala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온누리교회, 213-382-5658)
 - 9/11-13 시라큐즈 기쁨의 강 교회(세미나, 이재만, 315-727-8111), NY
 - 9/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CRC 목회자, 562-882-9191)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